

생각하지 않는 자 유퇴

사유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사유하기의 어려움



이숙영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대부분의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교육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용어가 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은 내가 가르치는 대학의 수업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히틀러 시대에 일어난 유대인 학살의 핵심 책임자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이유로 “단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체포된 후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 체류하며 이 엄청난 세기의 재판에 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한다. 이 책의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다. 법정공방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무사유의 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지 않은 것이 그가 저지른 죄였다. 악(惡)은 히틀러 같은 악인에 의해 기획되지만, 그 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특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최근 블랙리스트 범죄를 주도한 사람들이 ‘범죄인 줄 몰랐다’거나 ‘행정에서는 다 하는 일’이라는 말들은

악의 평범성의 좋은 사례다. ‘철저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 그것은 어리석음이나 사악함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인간성 내부에 존재하는 극악무도함을 초래한다. 어쩌면 ‘비범한 한 사람’의 엄청난 악행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어진 의무로서의 악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실하게 자행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들의 무사유일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오래전에 봤던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이 영화는 1984년 동독, 주인공인 정보국 요원 비즐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히만을 닮았다. 그에게서는 특별히 사악한 본성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답답할 만큼 성실하고 우직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앞에 주어지는 어떤 임무도 훌륭하게 완수해내는 유능함까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그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침투한 자동화된 국가의 명령어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만약 비즐러가 낯선 타인(드라이만)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그 역시 아이히만과 같은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동인형처럼 입력된 명령 프로그램대로 행동해왔던 과거를 되돌아보기



이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긴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제2의 아이히만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상상해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실한 살인범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작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머리로 사유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고뇌하며 망설이고 머뭇거리기 시작한다. 이 고뇌와 망설임, 머뭇거림이야말로 진정한 사유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는 기존의 당연하다고 여기는 보편의 가치체계를 선이라 규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공유하지 못한 가치체계는 악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익숙하게 생각해오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진부함과 상투성의 상징이다.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의 ‘banality’란 용어는 ‘평범’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부함’이나 ‘상투성’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즉 ‘진부함’이나 ‘상투성’이 곧 ‘악’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테두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 테두리 바깥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틀 바깥으로 넘어가 보는 용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빼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진정한 사유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악의 평범성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이제라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사유할 수 있음’과 ‘용기’가 중요하다. 나의 일(노동)에 대해, 내가 맷고 있는 사회와 주변 관계에 대해, 나의 사랑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감각이나 낯선 생각을 만나게 되면 불편해진다. 마음이 편치 않은 걸 넘어서 불쾌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사유가 시

작되는 지점이다. 낯선 그 무언가를 만났을 때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음은 습관적이고 협소한 나의 틀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자 나의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는 시발점이다. 또한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대가 틀렸다고 폭력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음이며 사회가 덜 야만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상상하여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타인을 보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소통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으로 가야만 그가 하는 한 마디가 들리고 그가 이해되기 시작한다. 나를 버리고 타자에게로 가야 하는 바로 이 지점에 사유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타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게 가능해질까? 그 것은 바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어쩌면 아이히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사유를 넘어 사랑의 결여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긴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제2의 아이히만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상상해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실한 살인범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부하고 상투적인 악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우리 모두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사유해야만 한다. ‘생각하지 않는 자 유죄’인 이유다. 